갑오년(甲午年), 말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한 해 되길…

정 근 대한결핵협회장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차게 시작됐던 201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의 2013년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자,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해였습니다. 과거 협회가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전진하자는 파이팅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협회는 지난 11월 6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많은 기관과 단체, 인사분들이 축하해주신 가운데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결핵 관계자들과, 앞서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이끌어왔던 원로들, 그리고 해외 결핵관계자분들까지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민(民)과 관(官), 신(新)과 구(舊), 동(東)과 서(西)가 함께한, 협회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협회는 북한 해주코리아병원 건립 및 개성 결핵검사센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방송과 신문지면을 오르내리고 있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가려고 합니다. 북한의 결핵퇴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언젠가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물론 통일의 작은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적'이라는 의미에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결핵상황이 OECD 가입국 중 1위인 것이 현실이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짧은 시일 내에 비약적인 경제와 문화 성장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성장의 과실을 바탕으로 과거 국제적 지원을 받은 만큼,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일들을 해야 하며, 결핵퇴치 지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2014년 협회는 북한 결핵퇴치를 비롯한 저개발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집중 결핵 발견 및 치료, 관리사업에 더욱 집중하여 그로 인한 결핵 전파를 막고 중장기 결핵퇴치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이제 지나온 60년이 아닌 다가올 60년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세워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4 갑오년, 협회도 말의 기상을 닮은 엄청난 동력으로 전진하길 기대해봅니다.
보건세계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